

코로나, '철·조·차' 직격탄... 가전·반도체 '그나마 다행'

(철강·조선·자동차)

코로나19에 희비 엇갈린 산업계

철강 수요 감소로 생산량 대폭 줄여 제철소, 가동 지속에 재고조절 실패
일각선 납기 '불가항력' 선언 고려
완성차 5개사, 판매 11% 줄어들어
공기청정기 필두 '가전시장' 특수
코로나에 재택근무 늘어 IT 호황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LG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린룸 내부.

/SK하이닉스

산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중공업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반면, 전자업계는 오히려 성장이 기대됐다.

9일 증권가에 따르면 철강업계 1분기 실적은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 현지 철강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된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열연강판 유통 재고는 2014년 이후, 봉형강은 2010년 통계를 집계한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철강 수요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 철강을 사용하는 공장들은 생산량을 대폭 줄인 반면, 제철소는 가동을 지속하면서 재고 조절에 실패했다는 전언이다.

조선업계는 발주를 맞추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납기를 맞추지 못하겠다는 '불가항력' 선언까지도 고려중으로 알려졌다. 조선 업계가 오랜 불황 끝에 회복세로 돌아섰던 상황, 정의당 등 정계에서도 사태 심각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브랜드 5개사는 전년대비 11%나 감소한 50만5212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는 탓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대리점 방문도 크게 줄었다는 전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1만5885대)보다 5.3% 상승한 1만6725대였지만, 수입차 통계에 새로 합류한 쉐보레(973대)를 빼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전자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다. 지난달까지 생

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시장 침체를 우려했지만, 생산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수요도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실적 향상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가전 시장은 코로나 19 특수로 소비 위축을 상쇄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필두로한 환경 가전 판매량이 예년보다 적잖이 늘어났다. 식기세척기와 건조기 등 위생과 관련한 제품도 판매량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도 시장 회복을 만끽하는 분위기다. D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등 서버업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고 수준도 정상을 유지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동 중단 우려가 높았지만, 일찌감치 대처한 덕분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IT 업계는 호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과 재택 근무가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일부 스타트업은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고객들에 사과문까지 전달했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견조하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일부 물량을 베트남으로 임시 이전하기는 했지만,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다.

단, 코로나19가 전자 업계에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일부 업종 피해가 적다는 것은 다행"이라면 서로 "사태가 더 길어지면 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가 모든 산업계를 덮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이 경북 소재 경주인재개발연수원(오른쪽)과 글로벌상생협력센터 2곳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 경북 생활치료센터 2곳 제공

경주시 소재 380실 규모

현대자동차그룹이 경북지역에 위치한 그룹 연수원 2곳을 대구·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 중인 경증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그룹이 제공하기로 한 그룹 연수원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의 경주인재개발연수원과 글로벌상생협력센터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이다. 경주인재개발연수원은 193실,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87실 등 총 380실의 숙박시설과 강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들이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치료가 이뤄져 빠른 회복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인재개발연수원과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현대차그룹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센터로 2017년 말 착공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숙박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구비한 후 3월말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경증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요청 등을 감안, 필수적 시설 보완 및 점검을 최대한 시급히 마무리해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억원을 기탁하고, 의료진, 피해자,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방역물품 제공 및 예방·방역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 방역 등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대규모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현대차 노사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사내 주요 거점 별로 헌혈 차량을 배치해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규 확진자 200명대로... 80% 집단발생

248명 중 216명 대구·경북서 발생
서울 10명, 경기 11명, 사망자 51명
10세미만 총 66명 '중증환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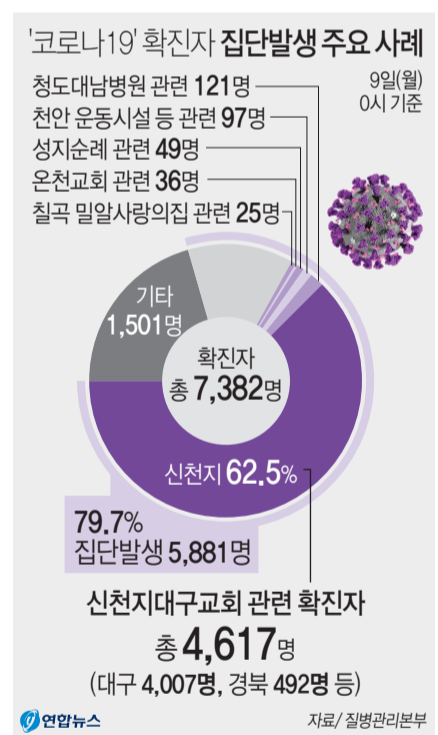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대로 하락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전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24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날 오전 12시 기준, 신규 확진자 248명 가운데 216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에선 190명이 늘었고, 경북에선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도 10명, 경기 지역에서도 11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6678명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나 총 51명으로 늘었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36명 추가돼 총 166명으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10세 미만 환자도 총 66명으로 집계됐다. 소아 환



되지만 여전히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79.7%는 집단발생과 연관된 사례이며, 이 중 62.5%가 신천지와 관련한 집단 유행이다. 나머지 20.3%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대구·경북 이외 지역은 빠른 확산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도 확진자가 늘며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부장은 "서울·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기업 무급휴가·급여삭감 사례 증가

기업 856곳 코로나 대응 조치

6.1% 무급휴가, 1.9% 급여삭감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숙박업종 위주로 기업들의 무급휴가·급여삭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기업 856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조치(복수응답)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조치 중 '사내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또는 배포)'(42.2%)가 가장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무급휴가'(6.1%), '급여삭감'(5.8%), '급여삭감'(1.9%) 등 직원 휴가와 급여삭감 조치도 확인됐다. 무급휴가는 '최대1주'(23.8%), '최대2주'(25.0%) 등 대체로 기

간이 정해졌지만 '복귀 시기 미정' 답변도 27.5%로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렇게 답한 곳은 중견기업(35.7%), 중소기업(34.1%)이 대기업(7.1%)에 비해 무려 5배 가량 높았다.

여행·숙박업종 직원의 경우 무급휴가나 급여삭감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종의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도 6.9% 수준으로 평균보다 각각 3배 이상 높았다. 이외 '근무시간 조정', '출퇴근 시간제 적용' 등 기타 답변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